

지역에 가까이, 더 가까이...

대구 경북 불교계 복지시설 확충 나서 전문 요양원 건립 등 삶의 질 높일 계획

대구경북지역 불교계가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거리 좁히기 차원이 아니라 함께 핑클며 동고동락 하자는 것이다. 그 매개체는 복지, 복지시설을 대폭 늘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는 뜻에서다.

불교사회복지회와 감천복지재단에서 는 치매노인 전문 요양소를, 경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재단들의 복지시설 설립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불교사회복지회가 2002년부터 대구 시 남구 이천동에 준비중인 저소득층 치매노인전문요양원 '여래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35평 규모로 70베드를 갖추고 3월말 개원예정이다.

또 조계종 감천복지재단도 지난해 말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600평 규모의 치매중증노인 전문요양원을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착공해 9월중 완공, 치매노인 7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 두 노인 요양원이 개원할 경우 지역 노인 복

지는 물론, 불교복지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월 29일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강운구 차관으로부터 설계비 2억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준비 중이던 1만여 평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체육관은 올해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말쯤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0평 규모로 경주 황성동에 지어질 장애인체육관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경주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과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도 2004년을 불교복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어 지역 복지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불교사회복지회가 대구 남구 이천동에 건립중인 저소득층 치매노인전문요양원 '여래원' 조감도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영남불교대, 中·日 역사 왜곡 규탄 공식사와 정부 적극 대처 촉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이하 영남불교대학이 '고구려사 보존회'와 '독도사랑 모임'을 결성하고 1월 29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2월7일에는 영남불교대학 마당에서 쉼터대회를 갖고 '고구려 역사 지키기' '독도 지키기' 결의를 다졌다.

영남불교대학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는 고구려를 자국의 변방사로 편입하려는 계획이라 밝히고,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할 것 등을 촉구하는 '동북공정 저지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망언'과 관련하여서도 일본의 역사왜곡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며, 독도 주권을 위협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영남불교대학은 2월 1일 현재 1만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배지선 기자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 천도제

천여명 참석, 추모 경기·음악회 개최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는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를 맞아 합동 천도제를 개최하고 추모 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2월 7일 오전 10시 지하철 사고 희생자를 위한 1주기 합동 천도제 및 추모시민 걷기 운동을 병행했다.

스님 및 유가족, 불자 천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법당과 지하철 중앙로 역앞에서 3부에 걸쳐 진행됐다. 불교복지재단 감천복지재단 또한 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 페도리극장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도룡봉 소송 4차 심리 연기

판사 인사이동, 재판부 새로 구성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동반대를 위한 '도룡봉 소송' 4차 심리가 2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번 연기는 그동안 '도룡봉 소송' 담당 재판부였던 제10민사부 윤인태 부장판사가 부산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되는 인사이동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도룡봉 소송' 4차 심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울산 지방법원에서 새 재판부에 의해 속행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염불공양회·일념장학회

불자 청소년·대학생 장학금

염불공양회(회장 하성심)와 일념장학회(회장 임대자)의 장학금 전달식이 잇달아 열렸다.

염불공양회는 2일 염불공양회 사무실에

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통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학생 3명과 고등학생 7명 등 모두 10명에게 5백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념장학회는 9일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대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에게 총 7백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해원정사 화엄경대설법회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화엄경, 그 깊고 넓은 화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화엄대법회가 열린다.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혜)는 2월 24일 우룡 스님을 법사로 제 13회 화엄산법회법회법회를 갖고 3월 14일 까지 대덕스님들을 초청, 화엄경을 설한다. 화엄경 대설법회 초청 법사는 24일 화성선원 조실 우룡 스님, 25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26일 통도사 강주 해남 스님을 비롯 범어사 강주 덕민 스님, 보림사 회중 보광 스님, 미륵사 조실 백운 스님, 경국사 회중 인환 스님 등이 참여한다.

20일간 열리는 화엄경 대설법회는 매일 오후 2시 해원정사 대웅보전에서 개최되며 법회기간동안 생략발 및 영가천도 법회도 함께 열린다. (051)866-7771 천미희 기자

"청바지 허리 28사이즈 없어요? 26사이즈 찾아주세요."

불국사가 운영하는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의류사업을 해오던 김영옥 씨(35,경주 황성동)가 재고 315벌을 복지관에 기증함에 따라 2월 4일부터 6일까지 복지관 강당에서 희망바자회를 개최해 훈훈한 사랑을 나눴다.

이번에 개최한 바자회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경주장애인복지관

'희망 바자회' 개최

얼어붙은 경기로 생활비 압박을 받아왔던 경주시 주부들에게 시중에 판매하는 청바지 청치마 등을 1만 원에 판매, 알뜰구매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복지관이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 홍보상 어려움이 많았다"는 실무 담당 이정희 복지사는 "지역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마련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복지관을 알리는 차원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정토회, 깨끗한 땅 넓히기 본격화

부산·울산·광주 법당 잇달아 개원

열린법당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부산, 울산, 광주에 잇달아 법당을 개원하고 '정토 넓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토회는 부산 명륜동 법당에 이어 2월 21일 오전 10시 개원 법회를 갖고 해운대 정토법당(051-747-9997)을 개원한다. 또한 울산 법당(052-245-8995)은 2월 14일 오후 1시에, 광주 법당(062-511-8990)은 22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원 법회를 갖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로써 정토회는 서울, 대전, 부산, 마산, 청주, 대구 법당에 울산, 광주, 부산 해운대정토법당을 보태어 총 8개 지역에 9개의 법당을 갖추고 환경·복지·통일 사업을 벌이게 됐다.

해운대 기계 공고 옆 국제빌딩 9층과 10층에 개원예정인 부산 해운대정토법당은 총 400평 규모로 10층은 법당으로 9층은 사무실 및 사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기존 명륜동 법당은 교육관과 법회 공간으로 그대로 사용된다. 이번엔 문을 연 해운대 정토법당은 신도시 개발로 날로 늘

어나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운대 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0평 규모의 광주 법당과 울산시 태화동에 개원하는 70평 규모의 울산 법당은 매주 수행법회와 불교대학 등을 열고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만들기 위한 정토 가꾸기에 들어간다.

특히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 개원을 기념하며 2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조금씩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1시,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해운대 법당에서 열리며 전국의 모든 정토 법당에서도 영상으로 진행된다.

정토회 장도연 기획실장은 "지역 법당은 음식물 쓰레기 제로, 비닐봉투대신 투명망 사용하기 등 환경 실천과 통일사업, 복지사업이 지역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달집태우기, 방생 등 이웃과 함께

부산 경북지역 대보름 행사

2월 5일 음력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에서는 달집태우기, 윷놀이 방생법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스님과 신도 만여명과 함께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방생법회(사진)를 병행하고, 달집에 불을 사르며 부처님의 생생존중사상 실천하고 한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다. 은해사 또한 윷놀이를 통해 화합을 다졌다.



매년 정월 보름 "함께 감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어려운 이웃에게 공양미 및 생필품을 보시하는 등 색다른 차원의 방생법회를 주도했던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올해는 윷놀이와 함께 청년불자 박원구 씨를 위한 기금마련으로 마음을 모았다.

또한 부산 흥법사 산하 한나래문화재단은 외국인인과 함께 하는 정월 대보름 연날리기 행사를 해운대 백사장에서 갖고 액운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전통 민속놀이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www.samhwade.com

중국 남경한의과대학 2004년 특차 모집 (마지막회)

학과	학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남경중의약대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유학용
석박사과정	3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효장사범대	4년	•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사범대	1~3학년 편입가능	• 여권용사진 10매

1. 주지스님 추천자 또는 지도교사 및 담임추천, 고등학교졸업자
2. 효장대는 전학과 신입 및 3학년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삼화불교대)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Tel. 86.25.6322539 / Fax. 86.25.5320825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 2027, 1080
Fax. 02)511-2028

- 중국 의과대학, 남경중의대, 남경효장 사범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deu.cn



중국남경의과대학·중의대학